

아제르바이잔 국가신용평가 리포트

2011.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10

I. 일반개황

면적	87천 km ²	G D P	518억 달러
인구	9백만 명	1 인 당 GDP	5,755 달러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Manat
대외정책	친서방외교	환율(달러당)	0.80

- 1991년 독립이후 독재 체제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이 소수 권력층과 일부 관료들에게 집중되어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연안의 요충지에 위치한 데다 원유(세계 20위)와 천연가스(세계 25위) 생산 및 경유지로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경제적으로 친서방외교를 표방하고 러시아, 이란과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와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영토분쟁은 미해결 상태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제성장률	34.5	25.0	10.8	9.3	5.0
재정수지 / GDP	-2.7	-2.3	-9.5	-14.9	-15.1
소비자물가상승률	11.4	19.7	15.5	0.6	7.8

자료: IMF, EIU.

□ 2010년 경제성장 둔화

- 2005~07년 20~30%대의 고성장을 거듭하던 아제르바이잔은 2008년 하반기 이후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009년 9.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음.
- 2010년에는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 생산량이 전년 대비 2.9%로 증가하는데 그쳐 경제성장률이 5%로 둔화되었으며 2011년에도 이보다 소폭 하락한 3~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 가중

- 2009년에는 경제성장 둔화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6%로 급격히 둔화되었으나 2010년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상승과 정부지출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8%로 급등하였음.
- 2011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과 유사한 8%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

- 아제르바이잔은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8~09년 유가 하락과 경제성장 둔화로 재정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었음.

- 2010년에는 재정지출이 GDP의 0.9%에 달하는 3.6억 마넛(4.5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여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15.1% 수준으로 악화되었으며 2011년에도 정부의 사회보장성 지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수지 적자 폭이 1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에너지 수출에 편중된 산업구조

-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및 관련 제품이 2010년 기준 총수출의 94.1%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임.
- 석유, 가스 산업 및 관련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 부문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독립 이후 내전으로 인해 산업기반이 붕괴된 비석유 제조업 및 농업은 투자 부진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에너지 자원 보유

- 아제르바이잔은 확인매장량 70억 배럴(세계 0.5%)에 달하는 원유와 확인매장량 1.31조 m³(세계 0.7%) 규모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음.
- 1991년 독립 이후 다국적 석유회사들의 투자를 유치해 카스피해 원유 및 가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Azeri-Chirag-Guneshli(ACG) 유전과 샤테니즈(Sha Deniz) 가스전을 개발하였음.

□ 유럽시장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확대 가능

- 유럽은 러시아 이외의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아제르바이잔을 주목하고 있음.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의 에너지 수송이 정치적, 기술적 요인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아제르바이잔은 세계 최장 BTC 송유관(아제르바이잔 Baku - 그루지야 Tbilisi - 터키 Ceyhan, 수송능력 100만 b/d)을 통해 2005년부터 유럽에 원유 공급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부터 천연가스 공급을 본격화한 SCP(South Caucasus Pipeline) 가스관은 연간 80억 m³의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현재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나부코(Nabucco) 가스관 건설이 이루어질 경우 아제르바이잔은 장기안정적으로 가스 수출을 확대하고 통관료 등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수출증대 추세

-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에 연간 66억 m³의 가스를 수출하고 있으며 그루지야에도 소량을 수출 중임. 러시아에는 2010년부터 연간 10억 m³의 가스를 수출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에는 수출량이 연간 20억 m³로 확대되었음. 이란과도 2010년 1월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을 시작하였음.

다. 정책성과

□ 산업다각화를 위한 노력 추진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2011~15년 국가석유기금(SOFAZ)을 활용해 사회보장성 지출을 확대하고 인프라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성장동력인 에너지 생산이 10년 내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15~20년 내에 감소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업 다각화는 아제르바이잔의 미래에 필수적임. 그러나 최근 세계경기 침체 등으로 비석유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2010년 1월 아제르바이잔 경제개발부는 농업 및 제조업 등 비석유부문의 성장을 위해 민간 부문 역할 확대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구체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과 액션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힘.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 상 수 지	3,708	9,019	16,449	10,178	15,262
경 상 수 지 / GDP	17.7	27.3	33.7	23.7	29.5
상 품 수 지	7,745	15,224	23,012	14,583	19,815
수 출	13,015	21,269	30,586	21,097	26,199
수 입	5,269	6,045	7,575	6,514	6,384
외 환 보 유 액	2,485	4,273	6,467	5,364	6,209
총 외 채 잔 액	5,903	7,048	8,837	8,577	10,919
총 외 채 잔 액 / GDP	28.1	21.3	19.1	19.9	21.4
D S R	3.0	2.0	1.4	1.7	1.1

자료: IFS, EIU.

□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

- 2009년에는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총수출이 25.9% 감소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 대비 23.6%로 감소했으나 2010년에는 유가 상승과 대외수요 증가로 GDP 대비 29.5%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11년에도 에너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입재에 대한 지출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상수지 흑자 폭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됨.

□ 외환보유액은 관리 가능한 수준

- 고유가와 에너지 수출 증가로 2005년 11.8억 달러에 불과하던 아제르바이잔의 외환보유액은 2008년에는 64.7억 달러 규모까지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53.6억 달러로 다소 감소했음.
- 2010년에는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62.1억 달러 규모를 회복하였으며 2011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010년 외환보유액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함에 따라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2009년 4.3개월에서 2010년 3.9개월로 악화됨.

□ 마넛화 환율은 안정세 유지

- 2009년 이후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개입으로 마넛화는 미 달러 대비 0.8 마넛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대규모 외환을 투입함에 따라 2009년 7월 외환보유액 규모가 49억 달러 수준까지 감소하기도 했음.
- 2011년에도 정부는 환율이 미 달러 대비 0.8 마넛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GDP 대비 크지 않은 외채규모

- 아제르바이잔의 총외채잔액 규모는 2010년 기준 109억 달러(GDP 대비 21.4%)를 기록하고 있어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규모가 과중하지 않은 편이며, 2011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DSR은 1%대의 낮은 수준 유지

- 총수출 대비 외채원리금상환액(DSR)은 2010년 총수출 증가세 회복에 힘입어 1.1%를 기록했으며 2011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알리에프 장기집권 체제 지속

- 2009년 3월 3선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됨으로써 일함 알리에프(Ilham Aliyev) 대통령은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였음.
- 2010년 11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인 신아제르바이잔당(New Azerbaijan Party: NAP)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안정적인 장기집권 체제가 지속되고 있음.

□ 정부에 대한 높은 국민 지지도 유지

- 아제르바이잔은 상대적으로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동유럽 지역의 석유 수출국보다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사회보장성 지출을 확대하며 경기침체의 영향을 완화시킴에 따라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분석됨.

2. 사회 안정 및 소요/사태

□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불안 잠재

- 아제르바이잔은 에너지 수출에 기반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해 왔으나 향후 에너지 생산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실질임금 상승이 둔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불안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소요 사태가 아제르바이잔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CIS역내 타국의 독재 체제가 무너질 경우 알리에프 독재체제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소규모 소요사태 빈발

- 2010년 12월 이후 최근까지 야당과 이슬람 세력이 주도하는 소규모 반정부 소요사태가 빈발하고 있으나 공권력에 의해 신속히 진압되고 있으며 현 정권에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음.
-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에는 등교시 히잡(hijab) 착용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에 반대하는 이슬람 세력의 시위가 이어졌고 2011년 4월에 발생한 반정부 시위로 65명이 구금되었음.

3. 국제관계

□ 서방과 러시아 간의 균형외교

- 아제르바이잔은 경제적으로 친서방 경향을 띄고 있으나 러시아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실리를 추구하고 있음.
- 서방은 카스피해 지역 에너지를 확보,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면서 동 지역의 원유와 가스를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서방으로 수출할 수 있는 독자적인 수송루트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아제르바이잔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음.
- 러시아는 에너지 부문 협력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터키와의 긴장관계 해소

- 터키가 2009년 10월 아제르바이잔과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y Karabakh) 지역에 대한 분쟁을 겪고 있는 아르메니아와 외교관계 및 양자협력 증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관계가 증진됨에 따라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과 터키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되었음.
- 2010년 중 터키와 아르메니아 간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면서 아제르바이잔과 터키의 관계는 다시 화해 국면을 맞이하며 2010년 8월 전략적 파트너십 및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양국간 긴장관계가 해소되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 정상상환 중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에너지 수출 증대에 기인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외채를 정상상환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의 외환보유액 규모를 감안했을 때 2010년 기준 GDP 대비 20% 수준의 총외채잔액은 아제르바이잔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됨.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은 17% 수준으로 단기간 내 외채상환 불능이나 채무 리스케줄링 위험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비중 미미

- 2010년 9월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승인잔액은 단기 1.1억 달러, 중장기 19.6억 달러이며, 이 중 단기 4천만 달러(0.26%) 및 중장기 1,280만 달러(0.65%)가 연체 중으로 연체금액의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며, 회수불능 금액은 중장기 3,2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2. 국제시장 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3('11. 4.)	C2('10. 3.)
OECD	5등급('11. 1.)	5등급('10. 1.)
S&P	BB+('09. 2.)	BB+('08. 12.)
Moody's	Ba1('11. 3.)	Ba1('06. 9.)
Fitch	BBB-('10. 5.)	BB+('07. 2.)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주요 신용평가기관은 대부분 신용등급 유지

- Fitch는 2010년 5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아제르바이잔이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 개선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BB+에서 BBB-로 상향조정하였음.
- OECD는 아제르바이잔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양호한 거시경제지표를 시현하고 있으나, 에너지 의존적인 취약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2011년 1월 회의시에도 현재의 5등급을 유지하였음. S&P와 Moody's는 2008년 12월과 2006년 9월 이후 각각 BB+와 Ba1을 유지하고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92. 2. 23 (북한과의 수교: 1992. 1. 30)

□ **주요 협정:** 항공협정('06. 12.), 외교관상호사증면제협정('08. 11.), 투자 증진 및 보호협정('08. 1.),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08. 11.)

□ **양국간 교역, 투자규모는 크지 않은 편**

- 2010년 우리나라의 대 아제르바이잔 수출액은 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7%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컴퓨터 및 합성수지이며 수입액은 4만 9,000달러로 우리나라가 아제르바이잔에 대해 불균형적 출초를 취함.
- 우리나라의 대 아제르바이잔 투자규모는 2010년 말 누계기준 9건, 331만 달러 수준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건설업 및 부동산업, 임대업에 집중되어 있음.

<표 4> 한·아제르바이잔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254,747	149,557	184,059	자동차, 컴퓨터, 합성수지
수 입	12,422	9,035	49	알루미늄
합 계	267,169	158,592	184,108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아제르바이잔은 2006~08년 원유,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 행진에 따라 상품,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며 대외유동성이 증가했으나 2009년에는 유가 하락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축소되었음. 2010년에는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이 5%대로 하락하였으며 2011년에는 이보다 소폭 하락한 3~4%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알리에프 대통령의 장기집권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고 있으나 2010년 12월 이후 최근까지 야당과 이슬람 세력이 주도하는 소규모 소요 사태가 빈발하고 있음. 대외적으로는 서방과 러시아 간의 균형외교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아르메니아와의 분쟁은 불안요소로 남아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주요 신용평가기관은 대부분 아제르바이잔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Fitch는 2010년 5월 동국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B-로 상향조정하였음.

책임조사역 허정옥 (☎02-3779-5708)

E-mail: johuh@koreaexim.go.kr